

한라봉 수부증

□ 수부증이란?

착색기 이후에 비 또는 이슬이 내리면 과피의 균열부분이 수침상으로 부패하는데 이 증상을 수부증이나 수부라고 부르고 있다. 수확 전에 따뜻하고 비가 왔던 해에는 저장중에 피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발생부위는 과경부와 과정부 부근이 많다.

□ 발생요인

발생요인은 첫째로 과피에 균열이 생기는 것, 둘째로 그 균열부로부터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이 2단계를 거쳐서 발생한다.

과일 성숙이 진행되면 표피세포는 노화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된다. 과피가 비나 이슬로 장시간 동안 과실 표면이 젖어 있으면 하피세포가 침투압이 높음에 대하여 표피세포는 흡수 팽윤하여 점탄성(액체가 유동할 때 각 부분이 서로 탄력적으로 저항하는 성질)이 낮아지므로 내압을 견딜 수 없어서 균열을 일으킨다.

이 균열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균열이지만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 물방울이 괴기 쉽다. 과경부 및 과정부 부근에 밀집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곳에 과원내에 있던 병원균(녹색곰팡이균, 백색곰팡이균 등)이 부착 및 침입하여 부패가 진행하게 된다.

□ 방지대책

방지대책은 우선 과실에 물방울이 묻지 않도록 봉지씌우기를 하거나 항구적인 대책으로 비가 오면 비닐하우스의 천창을 닫아 비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과피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칼슘제 등을 여러 번 살포하는 것이 과피장해를 낮추는데 유효하다. 만약 관수를 해야 한다면 착색기 이후에는 지면 관수를 실시하여 과습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해야 한다.

□ 약제방제

과피가 갈라짐과 동시에 병원균의 침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적용 약제를 살포하여 예방을 해야 하므로 베푸란에 벤레이트 또는 톱신엠을 혼용하여 살포하며, 반드시 수확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비오기 전에(비오기 전에 하지 않았다면, 비오는 도중, 비가 온 후) 살포하여 예방한다.



한라봉 수부증